대구 리노베이션 -‘ 일류 대구 마스터플랜 의 꼭지점

- 동대구역세권및 금호강변 개발, 도시철도3호선도 앞당겨 완공키로 -

‘ 일류대구마스터플랜 ’ 민선4기김범일 대구시장이내건공약을대표하는단어다.

대구 리노베이션

GRDP가 십여년내리전국최하위를기록하는등계수상으로나실질적으로도다른 어느 광역시도에 비해 경제가 어려운 대구를 새롭게 만들어보겠다는 의미에서 신임 김 시장은 공약을 이렇게 압축해 표현했다.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의 선두에 대구 리노베이션이있다. 도시개발, 즉건설만이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우선과제라는점을김시장은공약곳곳에서언급하고있다.

우선 동대구역세권을 단계적으로개발하겠다는 것이 김 시장의 첫 번째 계획이다. 동대구역세권개발은대구의관문으로서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역 주변에 혼재된 각종 교통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이계획의목적이다. 역지구 9만 7,000평을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대구교통센터및다기능복합업무단지건립이여기에포함된다.

대구교통센터는오는2010년까지우선적으로 개발하고 2015년까지는 단지 내에 비즈니스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기능 복합업무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역지구 개발에 국비, 시비, 민자 등을 합쳐 8,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대구교통센터는국비및시비 200억원, 민자200억원등 400억원, 다기능 복합업무단지는 민자 포함 7,600억원이투입될전망이다.

동대구역세권과더불어오는2010년까지 금호강변이 종합적으로 개발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금호강변에 환경친 화적인 문화 · 레저벨트를 조성하게 된다. 마라톤 풀코스, 자전거도로, 뮤지컬 전용극장, 야외음악당, 강변산책로, 수상레포츠시설 등이들어선다. 이를위해대구의마지막요지인 검단공단 북편의 40만평에 이르는 자연녹지개발이추진된다.

다음은 공단 리노베이션. 공단은 지속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추진 중이었지만 용지매입등의문제로번번이연기돼왔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김 시장은 1단계 소요 금액인 2,500억원은 공단 재개발 펀드를 통해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의 공약이 이뤄진다면 3공단은 2015년까지 첨단형복합산업단지로다시태어나게된다.

리노베이션은3단계로계획되어있다. 우선 33만평가운데5만평을아파트형공장으로 조성해 구미의 IT산업기지와 연계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단등관련지원기관을이전한다. 이어민간중심으로 잔여지구개발을유도하고 3공단 염색공단 성서1, 2, 3, 4차 단지 달성1, 2차 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으로마무리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군 기지 주변 낙후지역도개발된다. 김시장은미군기지에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남구 5만 6,000가구를균형있게발전시킬계획이다.

캠프워크미반환잔여활주로 7,000평을 우선 이전하고 후적지는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한다. 미군 부대는 캠프워크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이계획도자금이문제다. 김시장은 이전부지비용이시부담으로 하기에현실적으로어렵다는 점을취임전부터밝힌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옮기고 순차적으로나머지를옮기는형태가될 것으로보인다. 옮겨간 미군 기지, 즉 후적지에는 유통단지나산업단지가들어설예정이다.

끝으로칠곡, 범물지구대단위주거지역과의 수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을당초2019년에서2013년으로앞당겨 완공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3호선은 경전철로 추진되어도심구간은지하로, 외곽구간은지상으로건설하게된다. 시재정부담완화를위해민자사업추진을적극검토하고있다. 국비7,319억원, 지방비4,876억원 등 총 1조 2,199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가될것으로보인다.

지역 개발 · 경제 활성화로‘ 일거양득 ’

이처럼 김 시장의 대구 리노베이션은 다양한부분에서진행될예정이다. 물론이공약들은 적재적소의 자금 지원, 현장 중심의 행정 절차 간소화,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해결 등이 선과제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대구시민들이느끼고또실질적으로도필요한 사업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잡기에무리는없어보인다. CJ

김승근
대구신문기자